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7 Winter Vol.51

추위에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새하얀 눈길을 달려볼까요?



In Schaeffler

page 18 다시 찾는 수확여행
품질경영 품질시스템팀



For Life

page 32 사랑의 세레나데
안산공장 품질보증 오도윤 사원



To Communicate

page 50 따뜻한 시선
창원공장 테크놀로지 농촌봉사활동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다시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일에 대한 걱정과 미련은 던져버리고
새하얀 겨울왕국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리프트에서 내려다 보는 동화 속 눈꽃세상과
스노모빌을 타고 달리는 드넓은 눈밭.
벌써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합니다.

새하얀 눈을 도화지 삼아 새로운 꿈을 색칠하는 기술,
세플러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세플러+원

2017 WINTER Vol.51

세플러인의
꿈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일러스트 : 이승정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다른 한 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시기죠.
그럴땐 설국으로 떠나
머리와 마음을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새하얀 눈 위에 펼쳐질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발행일 2018년 1월 15일(통권 제51호)
발행인 이병찬
편집인 민유정
발행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Tel. 02.311.3434
기획·디자인 (주)디자인페이지
Tel. 02.324.9422
출력·인쇄 솔텍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ver Story

02 스키장 리프트 속 세플러의 기술

In Schaeffler

- 04 대표이사 신년사
- 06 테마 노트
고객을 감동시키는 소비자 중심의 사고방식
- 10 리더에게 묻다
서울사무소 인사 주기철 상무
- 12 미래를 위한 움직임
친환경 자동차 본격 비교분석
- 14 무모한 도전
서울사무소 트랜스미션 시스템 BD 영업
- 18 다시 찾는 수학여행
품질경영 품질시스템팀

For Life

- 24 행복 노트
임직원 자녀 동시 공모전 참가작
- 28 아빠 어디가
안산공장 설비보전 양진환 대리
- 32 사랑의 세레나데
안산공장 품질보증 오도윤 사원
- 36 세플러 미식회
전주공장 품질보증 장병렬 사원

To Communicate

- 42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
아르헨티나 페리토 모레노 빙하
- 46 트렌드 2017
아재영역 모의고사, 신조어 완전정복
- 48 새로운 시선
세플러의 새로운 얼굴 7인을 소개합니다
- 50 따뜻한 시선
창원공장 테크놀로지 농촌봉사활동
- 52 Schaeffler FOCUS
- 55 Schaeffler NEWS
- 58 Schaeffler Hotline



“
보다 강력한 전략과
조직혁신으로
2018년 다시 뛰는
세플러를 만듭시다
”

세플러코리아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벌써 2018년, 이제 2020년 까지 불과 2년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조기 대통령교체와 함께 새롭게 바뀐 제반 정책기조의 전환,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출범, 북핵 위기의 고조, 중국 및 일본과의 정치적 갈등 등 국내외 정치적 요인들이 일년 내내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것이 2017년 대한민국의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EP1 에로의 대대적인 기업정보 시스템 교체로, 운영체질의 혁신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우리 활동전반 깊숙한 부문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경쟁사의 시장침투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성장둔화 내지 생산 감소로 인한 충격을 완벽히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2015년 이래 3년째 외형상의 정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3BG(Business Growth) 2OR (Organizational Renovation)로 대변되는 기본 전략을 신년사를 통해서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기업성장 주도전략의 그 첫 번째는 당사 매출의 60%가 넘는 베어링제조부문의 경쟁력 혁신을 통하여 경쟁사의 시장침투에 맞서고 기업 수익성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향후 사업성장의 실질적인 투자재원을 지속적으로 재창출 할 수 있도록 하는 **New Bearing Production Concept 전략**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노후화된 베어링설비를 지금까지 세플러그룹이 개발한 최첨단의 기술을 집약하여 새로운 생산방식의 설비로 교체함과 동시에 외주가공을 포함한 전 생산프로세스의 최적화를 통하여 생산성 및 품질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상된 제품품질과 생산성은 과거 60년동안 지

켜온 최고 수준의 품질 및 원가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켜, 국내외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베어링 메이커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로봇공학 및 디지털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품질관리 및 생산 자동화를 실현하여 베어링 제조분야의 Smart Factory를 실현하는 Land Mark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대부분의 매출이 지나치게 베어링과 엔진부품의 전통적인 산업수요에 기반을 두고 편중되어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주요 수요산업 부문의 정체, 혹은 수요기반이 새로운 산업환경으로 변화할 경우, 이렇듯 고착되어 있는 단순한 사업기반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수요와 기회감소에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기업성장 주도전략은 제품 단위당 창출가치의 확대와 사업분야 다각화를 통하여 기반산업의 양적인 정체 하에서도 기업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한,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과 미래 성장산업 분야로 참여를 확대하는 가치 중심의 기업성장을 유도하는 **Value Based Business Portfolio Expansion 전략**입니다.

이미 사업화에 성공한 3세대 휠베어링이나 진공펌프용 정밀베어링 등은 기존의 제품보다 수 배 이상의 단위당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연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유니에어와 같은 제품들은 부품에서 시스템 제품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동장치는 새로운 개념의 통합모듈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세플러그룹은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Solution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IoT 와 로봇 등 자동화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컨디션모니터링으로 대표되는 서비스 기반의 비즈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의 제품에 국한하지 않는 매출성장의 신 지평을 열어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다각화는 전 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절대적인 수요성장에 제한되지 않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2013년 이후 잠재 성장을 이하로 떨어진 한국경제는 좀처럼 성장의 모멘텀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국내 대표산업의 국내 생산이 해를 거듭하면서 정체국면에서 감소국면으로 전환됨으로써 새로운 시장개척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기업성장 주도의 세 번째 전략**은 해외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통한 시장 수요확대를 추구하는 **Global OEM Penetration 전략**입니다.

자동차 및 산업기계를 망라한 일본OEM 업체

들은 세플러코리아의 가장 중요한 개발목표이자 핵심 타겟 시장입니다. 일본 시장의 개척은 또한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OEM업체들로의 개발확대도 연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유수의 자동차 부품제조사 및 삼성, LG, SK 등 이미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과 협력관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의 동반진출은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제공할 것이며, 국내에 진출해 있는 GM, 르노, 마힌드라 등의 글로벌 자동차사의 구매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 생산기지의 제품공급으로 기업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New Bearing Production Concept 전략, Value Based Business Portfolio Expansion 전략, Global OEM Penetration 전략**으로 Schaeffler Korea 의 강력한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 입니다.

해외투자법인으로서 우리가 선택한 조직문화형성의 방법론은 아주 간단하게 카피 앤드 패이스트를 하거나 기존의 것을 최고인 양 그냥 유지하는 갈라파고스제도처럼 고립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한때 글로벌 스탠더드를 자랑했던 우리가 어느덧 한국의 중견기업과 비교해도 혁신성이나 효율성에서 뒤쳐진 제도와 조직운영체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단순 모방을 통한 부작용만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직문화 혁신전략은 상대적으로 개인의 역량과 자발성이 무시되고 수직적인 지휘체계를 통하여 평균화된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과 조직, 개인과 개인간의 분리를 야기함으로써 이기심을 증폭하여 결국은 의사소통의 채널이 차단되어 폐쇄적인 조직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이양함으로써 수평적 조직관리를 지향하는 **Empowerment 전략**입니다.

위임된 권한과 책임을 통해 전 종업원들은 주인의식을 자발적으로 채워야 할 것이며 문제해결의 속도와 전문성 또한 비약적

으로 향상하여 새로운 조직문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균연령의 비약적인 증가에 따라 최근 60세로 연장된 근로자 정년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직장 내 여성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커져나감에 따라 기존의 연공서열 및 남성위주의 승진 성과 보상시스템을 유지하고 단지 단편적으로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우수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불가능하며 과업의 성과창출이 저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업무의 난이도와 성과에 대한 기여에 따라 보상 및 승진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Performance Oriented 전략**이 **두 번째 조직문화 혁신전략**입니다. 성과와 직무가 연동된 각종 제도의 확대실시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우리 조직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대놓고 이야기 하지 못했던 단순히 연장자와 근무연한에 대한 우대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고 대우를 받는 살아 숨쉬는 조직문화가 태동하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는 전년도의 부진에서 벗어나 4% 이상의 매출신장을 확신하고 있으며, 한동안 움츠렸던 제반 경영혁신 활동 및 조직활성화 활동을 다시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한국의 여타 경제 여건들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훌륭한 기업은 이럴 때 일수록 그 진가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2018년 다시 뛰는 세플러코리아를 만들어 가는데, 전 임직원 여러분들은 힘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일
세플러코리아 대표이사
이 병 찬

고객을 감동시키는

소비자 중심의 사고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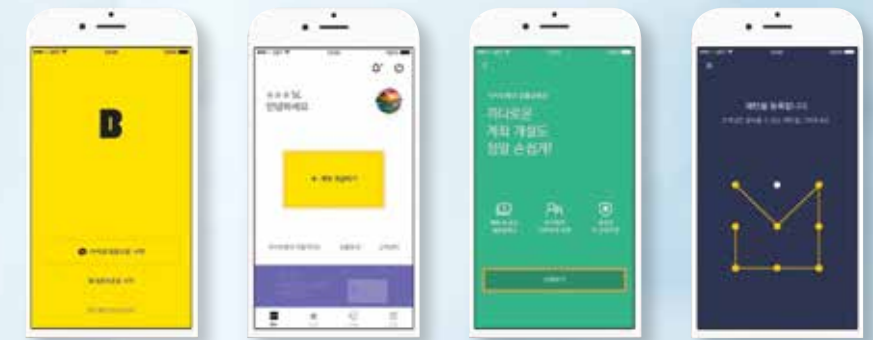
변화의 거친 파고 속에서도 사업의 본질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제공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점이다. 저성장의 골이 날로 깊어지고 경쟁의 강도가 점점 드세지는 비즈니스의 전쟁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명확하다. “우리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를 살짝 다른 각도로 말하자면, “우리 고객은 기존의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무엇을 불편해 하고 있는가?”이다.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탈피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기회를 잡는데 성공한 기업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C o n s u m e r . . f o c u s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고민하는 카카오뱅크

500만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은 카카오뱅크의 약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대단한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은 결코 아니다.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환경에서 고객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어야 고객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다. 그들은 스마트폰 거래에 익숙한 사람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편리함’과 ‘신속함’이란 가치에 주목하였다. 금융뿐만

아니라 상품 구매와 같은 모바일 거래에서 고객들에게 가장 큰 불편은 공인인증서 입력을 통해서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10초 이상을 기다리지 않는다. 카카오뱅크는 고객들의 가장 큰 불편함을 단박에 해결함으로써 고객들의 열화같은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 패턴으로 간편하고 쉽게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때문에 고객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습관적으로 로그인하게 되고, 고객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곧 더 많은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소비가자가 원하는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 시장을 개척한 카카오뱅크

또 하나의 '편리함'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과감하게 탈피한 것을 들 수 있다.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기존의 앱을 방문하면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공급자가 팔고 싶은 상품들은 늘어놓는 방식이다. 이때 공급자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고객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래를 선택과 집중 형식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바로 이 점에서 성공작이다. 카카오�뱅크의 성공에는 기존의 소비자들의 불편하다고 느낀 서비스 즉, 과도한 서비스를 제거해서 '심플'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주효하였다. '편리함'에 더해 '신속함'이란 가치를 고객에게 선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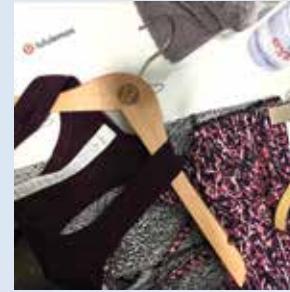
기존 은행 앱에서는 메인화면에 은행이 내세우고 싶은 신규 서비스로 가득한다. 대신에 카카오�뱅크는 고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소액 송금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더욱이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사업모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 서비스가 기존 은행에 비해 저렴하거나 무료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저성장 시대에 맞는 사업 모델이다. '저렴함'이란 가치도 성공의 기여 요인이다. 카카오�뱅크 이용자들의 후기를 살펴볼 때 자주 등장하는 문장은 "고마워요"이다. 그만큼 고객들이 불편함을 겪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의 불편함에 귀 기울이는 룰루레몬

의류업계에서 신화 창조 사례 가운데 하나가 룰루레몬(Lululemon)이다. 요가복을 마치 일상복으로 유행시킨 대단한 혁신 사례인데 캐나다 출신의 창업자인 데니스 월슨의 작품이다. 실제 미국 서부의 경우 몸에 착 달라붙은 요가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흔하다. 그의 예리한 관찰력이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요가를 배우기 위해 찾은 곳에서 그가 주목한 것은 땀 배출도 잘 안되고 불편한 옷을 입고 요가에 전념하는 사람들이었다.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요가를 할 수



일상복으로도 충분히 활용가능한 요가복 개발에 앞장서는 룰루레몬



있을까?" 이런 단순한 질문에서 그가 주목한 핵심은 원단 경쟁력이었다. 룰루레몬의 대표 상품인 요가 바지에는 5년간 운동복으로 입고 세탁해도 견딜 수 있고 수축방지 처리가 된 통기성 소재다. 최고의 원단을 원단 공급처는 주로 대만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세리 워터슨 부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최고 원단을 만들기 위해 화학자 및 원단 제조업체들과 일합니다. NASA의 과학자들과도 일하지요. 원단 비용이 제품 원가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룰루레몬은 '패스트 팔로어'가 아니라 '마켓 이노베이터' 사례로 손꼽힌다. 룰루레몬의 개척한 요가 시장은 오늘날 여성 의류 분야에서 큰 제품군을 만들어 냈다. 20여년의 창업 역사 동안 룰루레몬이 줄곧 집중하고 있는 것은 편하고 땀 배출이 잘되는 요가복의 제조이다. 지역의 요가 스튜디오와 밀접한 협력관계

를 형성하고 신제품은 출시 전후에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완벽한 제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고객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는 창사 이래로 이 회사의 중요한 관심거리로 자리 잡아 왔다. 흥미로운 점은 룰루레몬 제품들은 경쟁사 대비 가격대가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식지 않을 뿐더러 후발자를 따돌리고 있다.

결국 고객감동의 성공 여부는 관심과 관점

의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고객들

이 무엇을 불편해 하는가,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 가는 대단한 혁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

고, 고민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사업 기회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제품

이나 서비스에 안주하지 않고 고객입장에

서 항상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관심과 새

로운 시각을 접근하려는 태도와 자세가 고

객감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



경청의 미학을 아는 열린 마인드 리더

서울사무소 인사
주기철 상무

생각한 것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한 남자가 있다. 서울사무소 인사부서의 주기철 상무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항상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세플러코리아의 신문고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Mini Profile

생년월일
1963년 9월 12일

혈액형
O형

가족관계
아내와 2녀

좋아하는 음식
회

좌우명
생각하는 대로 살자

스트레스 해소법
가벼운 산책, 목욕



업무적으로는
인사 영역에서 이름을 남기고,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의 말을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은
삶을 살고 싶어요.

처음, 그리고 마음의 환기

Q. 처음 입사했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A. 그럼요. 1989년에 제 생애 첫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1987년에 결혼을 하고 첫째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신입사원 때도 특별히 실수한 기억이 없어요. (웃음) 항상 기본은 했던 것 같아요.

Q.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 일단 신입사원이니까, 배우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배울 기회가 온다면 배우는 걸 주저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해요. 고상하게 표현하면 성찰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자존감도 높아지고 조직에 적응도 잘하고 자신감도 생긴다고 봐요.

Q. 매너리즘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A. 제가 벌써 30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까 몇 번 있었죠. 직장생활 5년 차, 20년 차 즈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이게 맞는 길인가?'라는 고민이 생겼었는데, 해외 지사에 지원해서 업무환경을 변화시킨다는 새로운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극복했던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을 전환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로 고민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극복했어요.

현재를 사는 청춘

Q. 상무님의 청춘은 언제였나요?

A. 저는 사실 항상 청춘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요. 제가 생각하는 청춘은 그거예요. 항상 열려 있고, 배우는 데에 두려움이 없고, 자신 있게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청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세만 갖추고 있다면 항상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Q. 요즘 최대 관심사나 고민이 무엇인가요?

A. 요즘은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 고민이에요. 사회나 조직에 기여해야 할 것도 있고,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하고 싶은 건 꼭 해보기, 불필요한 연명 치료는 하지 않기, 장기 기증 하기,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살아있는 동안 백만 명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예요.

Q. 2018년, 이것만큼은 꼭 해내겠다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A. 항상 날씬하게 살고 싶어요. 매년 저의 새해 다짐은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서인지 (웃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80킬로라 75킬로까지 살을 뺐다고 해도 보통 1년이 지나면 다시 80킬로가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다짐을 계속 유지하고, 한 번 더 다시 시작하는 게 목표예요. 날씬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세플러코리아의 신문고

Q. 나는 세플러코리아의 000대!

A. 귀? 신문고다. 저는 듣는 걸 되게 잘해요. 뭔가 아쉬움이 있으면 와서 제 방문을 두드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물론 모든 사람의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듣고 공감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해결책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함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상무님은 어떤 리더인가요?

A. 예전에 어떤 팀원이 저한테 자유방임형 리더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맞는 말 같아요. 저는 대개 팀원들한테 믿고 맡기는 편이에요.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결과물에 대해 고민하는 정도로만요. 자세하게 지시하는 건 잘 못해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원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본인이 충분히 창의력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사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A. 요즘 그런 얘기 많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 너무 빠르게 가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 건지 항상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갈림길에서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무언가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버리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1%만이라도 기우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선택했다면 행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전기차 VS 수소전기차 VS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3파전 막 올랐다



미래의 친환경차 주도권을 놓고 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모두 친환경차지만 장단점이 각각 확실하다. 어느 차가 미래 자동차 시장의 대세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업체들은 “일단 모든 차종을 개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글로벌 자동차 업체마다 주력으로 삼은 차종은 다르다. 전기차의 주력인 기업은 미국 테슬라와 중국 BYD(비야디), 메르세데스-벤츠 모기업인 다임러 등이고, 수소차에 적극적인 곳은 현대차와 일본 도요타, 혼다 등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완성차 업체 대부분이 뛰어들었다.

전기차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 수소연료전지차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전기차	- 최근 가장 대세 차종	- 1회 충전 시간 길어 - 배터리 수명 문제 있음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 동시 사용 가능해 효율성 높아	- 궁극적 친환경차로 가는 중간 단계
수소연료전지차	- 전기차보다 친환경 - 수소 충전 시간 짧아	- 수소 충전 시설 확충 비용 막대해



친환경차의 주인공은 나야 나, 전기차

아직까지 주도권은 전기차(EV)가 갖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을 결합하지 않고, 변속기 등 동력 전달 장치도 필요 없고 초기 가속도 우수하다. 각국 정부에서 구입 보조금을 전폭 지급하는 것도 이점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올해 순수 전기차가 1만대 이상 팔렸다. 1년 사이 시장 규모가 2배 성장한 것이다. 특히 전기차 열풍을 선도하는 테슬라는 작년 ‘모델S’와 ‘모델X’를 전 세계에 팔며 급성장 중이다. 올 하반기 출시한 보급형 전기차 ‘모델3’은 전 세계 사전 계약 물량만 40만대에 육박한다. 아직 양산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매달 200여대 수준을 생산하는데 그치지만, 전기차 옹호론자들은 여전히 테슬라의 기술력을 신뢰하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 11월 16일(현지시간) 첫 전기트럭인 ‘테슬라 세미’와 ‘로드스터 최신행’을 선보였다. 테슬라 세미의 경우 1번 완충 시 500마일(805km)을 갈 수 있다. 로드스터는 제로백이 1.9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도 전기차를 중점으로 하는 전략을 세웠다. 다임러 디터 제체 회장은 “수소차가 개발될 시점엔 전기차가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면서 “수소차는 미래차로 적절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벤츠는 지난 9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순수 전기차 브랜드 ‘EQ’ 최초의 콤팩트 사이즈 콘셉트카를 공개했다. 벤츠는 이 콘셉트카를 기반으로 앞으로 소형 전기차 양산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모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현대차도 내년 소형 SUV인 ‘코나’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이고, 쌍용차도 2019년부터 전기차를 양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BMW도 순수 전기차 모델인 ‘뉴 i3’와 ‘뉴 i8s’를 출시할 계획이고, 폴크스바겐도 전기차 콘셉트 모델 ‘신형 I.D. 크로즈’를 공개한 상태다.

하지만 전기차는 높은 배터리 원가와 배터

리 수명 문제, 1회 충전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지금 전기차는 완전 충전(완속)을 위해 8시간 동안 충전을 쏴놔야 한다”며 “배터리 개발 기술에 한계가 있어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적이라 무한 발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이가 없네!?, 진정한 친환경차는 수소차지.

전기차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은 수소전기차다. 수소전기차(FCEV)는 고압 수소를 충전 탱크에 저장했다가 탱크 내 수소와 대기 중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로 모터를 구동해 동력을 얻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전기차와 동일하지만, 직접 차량 내부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 산소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전기차보다 더 친환경적이다. 또 1회 충전시 500km를 갈 수 있고, 수소 충전 시간도 일반 휘발유와 비슷한 5분 남짓이면 충분하다. 수소차는 필터를 통해 공기를 걸러 산소를 포집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 중 초미세 먼지가 99.9% 이상 제거된다. 이 때문에 수소차는 ‘달리는 공기 청정기’로 불린다.

이런 장점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적잖은 관심을 보인다. 현대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 ‘투싼 ix’를 출시했고, 내년 차세대 수소차를 양산할 계획이다. 권문식 현대차 부회장은 “전기차는 원가 절반 이상을 배터리가 차지할 정도로 배터리가 원가 상승 요인”이라며 “수소차는 전기차와 달리 기계 시스템이라 차량 가격이 일반 내연기관 차 이하로 떨어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도요타도 수소차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2014년 미라이 모델을 개발해 상용화했고, 최근엔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수소연료전지 승용차와 버스로 선수들을 나르고, 2020년엔 연간 3만 대 수소차를 판매할 것이라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올해 도쿄 모터쇼에서 수소차 콘셉트카인 ‘파인 콤포트 라이드’를 선보였다. 이 차는 1번 충전시 1000km를 갈 수 있다. 혼다도 2016년 3월 수소차를 양산했고, BMW도 2006년 이후 수소차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전문가들은 현재는 전기차가 득세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소차가 미래 시장의 대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수소차 운행을 위해선 전국 곳곳에 수소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설치 비용이 1곳당 30억~40억원이나 든다. 차 값도 비싸 투싼ix 수소차는 1대당 8500만원(보조금 제외 시)에 달한다.



효율성 측면에서 단연 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수소차 단점 때문에 2030년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이 앞서갈 것이라 관측도 있다. PHEV는 전기 충전과 함께 휘발유·경유를 이용하는 내연기관을 같이 사용해 효율성이 좋다. 평일 출퇴근 시 전기차 모드로 주행하고, 주말 먼거리 주행에는 내연기관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액수를 제외하면 가격도 전기차에 비해 저렴한 편. 이 때문에 대부분 자동차 업체들은 현재 PHEV를 많이 내놓았다. 기아차는 소형 SUV인 니로의 PHEV 모델을 출시했고, 도요타도 지난 4월 PHEV 차량 프리우스 프리임을 선보였다. 메르세데스-벤츠도 올 하반기 최초 PHEV SUV ‘더 뉴 GLC 350 e 4MATIC’을 출시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인프라와 각 차종 단점을 분석해보면, 2030년까지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호흡은 언제나 최고지!



페활량의 왕을 찾아라!

서울사무소
트랜스미션 시스템 BD
영업팀

'팀워크'라는 말은 단순히 함께 일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호흡을 맞춰 일할 때 비로소 '팀워크'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최강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서울사무소 트랜스미션 시스템 BD 영업팀, 그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의 호흡을 알아보자.



#1

두 팀으로 나누어 게임을 시작합니다!
우리팀 파이팅!

#2

티슈를 입가에 대고,
시작! 소리에 맞춰 힘차게 불어줍니다!



페활량 왕 선발대회! 티슈 오래 불기

티슈를 고객의 신뢰라 여기고
호흡을 맞춰서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사무소의 업무 특성상 이어지는 회의 중간중간의 시간을 내어 트랜스미션 시스템 BD 영업팀은 국내외 자동차 회사들의 트랜스미션 관련 제품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품 컨설팅에서부터 전략적인 견적 제출 및 수주 등의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는 부서다. 고객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여 업무를 협의하고 조율하면

서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다 보니 스스로를 셰플러의 얼굴이라 부른다고 할 만큼 자긍심이 넘치는 팀이다.

이 팀에 주어진 무모한 도전 미션은 '티슈 오래 불기' 게임이었다. 티슈를 고객의 신뢰라 생각하고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입으로 불어 오래 버티는 팀이 승리하는 룰로 진행했다. 우선 무작위 두 팀으로 나누어 게임을 진행했는데, 게임의 룰을 익히기 위한 연습 게임부터 승부욕으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각각 일대일 경기를 펼치게 되었는데, 게임

이 진행될 때마다 열기가 후끈 달아오를 만큼 집중하며 승부욕을 보였다. 생각보다 훨씬 열띤 경기 끝에 게임은 승자와 패자로 나뉘었지만, 각자 개인기에 버금가는 유연함과 순발력이 오히려 더욱 화제가 되어 서로를 칭찬하기에 바빴다. 늘 순간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과 고객에 대응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데, 그런 우리 부서에 딱 맞는 게임이었던 것 같다는 후기가 지배적이었다. 우연이었는지 필연이었는지 팀에 딱 맞는 이번 무모한 도전은 성공으로 끝난 듯 했다.



#3

아이쿠,
생각보다 너무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4

매니저님 자신있으시죠?
말려만 두라고!!



#5

우리가 이겼다! 역시 우리 팀의 호흡은 최고야!



정성껏 만든 고구마 카스테라 경단을 준비하고 행복한 웃음을 짓는 한영제 사원

Recipe

고구마 카스테라 경단

재료

삶은 고구마
설탕 혹은 꿀
아몬드 슬라이스
카스테라



01 삶은 고구마를
손가락으로 으깬다.



02 꿀 혹은 설탕과 잘게 부순
아몬드 슬라이스를 넣고
고구마와 함께 섞어준다.



03 카스테라를 곱게 체에 내려
가루로 만든다.



04 2의 고구마를 한입크기로
뭉친 뒤 3의 카스테라
가루에 굴려 마무리한다.



05 완성된 고구마 카스테라 경단은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한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팀 분위기를 담은 간식

이번에 팀원들에게 전달할 간식은 팀의 막내인 한영제 사원이 준비했다. 비교적 간단한 재료로 만든 '고구마 카스테라 경단'이었다. 요리를 자주 해보지 않아 자신이 없던 한영제 사원은 진지한 모습으로 차분히, 준비한 레시피 대로 팀원들을 위한 간식을 만들어 갔다. "평소에 이번처럼 팀원들에게 무엇인가 의미 있는 선물 혹은 간식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팀원들에게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라며 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하게 간식을 만들어 낸 부서 막내의 모습에 선배들은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라며 장난기 가득한 얼굴을 했지만 막상 음식을 맛보자마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트랜스미션 시스템 BD 영업팀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고 있으며, 업무가 끝난 후에도 종종 저녁을 같이 먹는 시간을 가진다고 한다. 식사를 할 때는 가벼운 업무 이야기에서부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많은 대화를 하고,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는데, 그런 게 바로 팀의 분위기와 팀워크가 좋은 이유라고 한다. 부서의 업무가 장기적인 플랜을 준비하고, 또 이에 따른 리스크를 예측해서 최소화하는 일이다 보니 항상 팀원 간에 많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 익숙하다고 한다.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난관을 함께 헤쳐나갈 동료이기에 지금처럼 팀워크를 이어나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고 한다. 새해에도 이들의 바람대로 늘 즐겁고 유쾌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한영제 사원이 직접 만든
고구마 카스테라 경단의
맛에 새삼 놀라며,
따뜻한 차 한잔의 여유를 가지며
치열했던 티슈 오래불기 게임의
여흥을 마무리했다.



인터뷰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트랜스미션 BD 영업팀

+ mini interview

서울사무소 트랜스미션 시스템 BD 영업
권재홍 매니저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우리' Sales 멤버들 모두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매사 업무를 임함에 있어서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줄'겁게 생활하면 그 속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즐. 보.의 생활화! 파이팅



서로의 입에 경단을 넣어주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트랜스미션 BD 영업팀의 훈남 · 훈녀



일상의 스트레스여 안녕,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아래로

품질경영 품질시스템팀

제주도, 우리나라 고유명사 중에 이름만 들어도 이토록 설레는 단어가 있을까? 남녀노소 연인과 가족 또는 혼자서라도 무작정 떠나고 싶은 그곳 제주도는 모두의 힐링 일번지다. 제주도 그곳으로 워크숍을 떠난 창원공장 품질시스템팀과 함께 했다.



은폐는 기본, 페타이어 뒤에 꼭꼭 숨어 반격의 기회를 엿보는 품질시스템 팀원들

숨은 일꾼들의 특별한 외출, 제주 힐링 캠프

품질시스템팀은 창원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세플러코리아 CEO 직속 조직으로 품질담당 임원인 팀장과 6명의 스태프로 함께 운영되고 있다.

품질시스템팀은 세플러코리아라는 커다란 선박에서 선장과 조타수 사이를 이어주는 항해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상세한 항로를 책정하고 외부 기상상태와 내부 선박의 상태를 파악해서, 낭비와 산포를 줄이고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방향을 이끌어 고객만족이라는 목표점에 도달하게 하게 만드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희 팀은 구성원 각자의 전문분야가 다르고 각자 독립

된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가 많아서 팀원이 함께 근무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이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함께할 시간이 적어 가끔 진행되는 협업에도 난항을 겪을 때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팀 내에서 낸 아이디어가 바로 ‘Team building workshop’이었다고 한다.목요일 저녁 늦게 출발하여 2박 2일의 일정을 준비하여 낮에는 Team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team원간의 어색함을 풀고, 오후에는 서로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team work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기로 한 것.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는 몸을 움직여 푸는 방법이 좋다는 생각으

로 제주바다 관광이 아닌 그들만의 체육시간을 갖기로 했다.

1교시, 휴먼지 휘날리며 돌격 앞으로

품질시스템팀이 선택한 첫 번째 종목은 서바이벌 게임이었다. 휴바닥에서 직접 뛰고 기며 몸을 아끼지 않고 움직이기에 안성맞춤인 종목이었다. 험난한 게임이 예상되는 만큼 우선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오랜만에 입어본 군복은 비록 고무줄 바지에 품이 잘 맞지 않았지만 다 갈아입고 나니 오랜 전 잊어버린 줄 알았던 예비군 병장의 자세가 바로 나왔다. 이어 전용헬멧을 비롯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움직이면 쏜다! 적군인듯 적군아닌 아이러니 서바이벌 현장.

서바이벌 게임을 시작하기 전 파이팅을 외쳐본다.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를 지급받고 나니 십여 년 이상의 경력의 용병 같은 포스가 뿜어져 나왔다. OB와 YB팀으로 나눠 게임을 진행하기로 했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서바이벌 장으로 입성. 각 팀별로 출정식에 나서는 용병들처럼 기념사진을 찍고 각자의 진지로 흩어졌다.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 “저쪽으로 돌아가서 숨으세요!”, “제가 엄호할테니 저쪽으로 뛰어가세요!”, “총알이 다 떨어졌어!” 이곳저곳에서 함성과 총성이 이어지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겨울 바람에 흩날리는 흙먼지 따위는 아랑곳없이 은폐와 엄폐는 기본이고 낮은 포복까지 이어지며 게임이 진행되었다.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게임을 이어간 결과, 경험에서 우위를 가진 OB팀에 승리로 끝이 났다. 치열했던 게임의 여운 속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그들만의 체육시간 1교시를 마무리했다.

2교시, 따라올테면 따라와 봐, 질주본능을 펼쳐라

서바이벌 게임이 끝나고 채 땀이 식기 전에 군복을 갈아입고 다음 코스로 이동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이들의 전문분야라 할 수 있는 자동차, 그 중에서 레이싱이었다. 물론 작고 안전한 카트를 이용한 레이싱이었지만 다들 임하는 자세가 사뭇 진지했다. 레이싱장에 차례로 들어선 후 당연히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운전법과 코스설명 등을 들은 후 차례로 레이싱을 시작했다. 다들 처음 출발은 부드럽게 출발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조금씩 달리며 코스가 익숙해지자 숨어 있던 질주본능을 되살려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매서운 제주의 겨울 바람 때문인지 불과 코끝이 발그스름해질 정도 스피드를 즐겼다. 레이싱이 차례로 끝나고 곧인 지점에 도착한 이들의 모습을 보니 처음과 달리

이미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본 터라 그런지 진정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줄 아는 모습들이었다.



재 이제 달려볼까. 레이싱 출발선에서 출발을 대기하는 팀원들.



다시 찾는
수학여행
그땐 그랬지 —

+ mini interview

김홍진 대리
품질경영 품질시스템팀

수학여행이나 MT라고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대학교 1학년 때 갔던 MT입니다. 대학 MT의 추억은 대학생들의 자신감과 사회생활의 시작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추억이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제주도 팀 워크숍도 언젠가는 소중한 간직하고픈 좋은 추억이 되겠지요.



저희 품질시스템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우리 팀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 그리고 업무협조도 잘 부탁드립니다.



머리카락도 무시시해지고 옷매무새도 많이 흐트러졌지만 표정만큼은 한결 밝아져 있을 수 있었다. “모처럼 마음껏 달리니까 가슴이 뻥 뚫리고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서로 머리와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방금 있었던 서바이벌 게임과 레이싱에 대해 왁자지껄 경험담을 쏟아 놓는다. “우리팀이 야말로 각 분야의 전문가 용병인 셈입니다. 저희가 실수를 하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걸 찾아내고 바로잡을 사람도 저희 밖에 없어서 늘 신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더욱 스트레스가 많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서 오늘처럼 스트레스 해소를 해야겠습니다.” 이들의 예상대로 몸을 움직이니 업무 스트레스 따위는 이미 제주의 거센 바람에 날아간 듯 보였다. 이들의 제주 힐링 캠프는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회사에 돌아가서도 제주의 바다를 그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멋진 향해를 이어가게 될 것 같다.

For Life

2018년 올해,
나는 어떤 목표를
실현할 것인가?

새해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설정

꿈을 기록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던 적은 없다.

꿈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만 레이(Man Ray)

지난 해를 돌이켜보았을 때 잘한 점은 무엇인가요?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올해안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 지금 무엇을 해야하나요?

새해 목표설정 Tip. 'SMART' 원칙

1. **Specific**(구체적)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2. **Measurable**(측정가능)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하고 있는 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Action-oriented**(실천적) 막연해서는 안되며 실천 단계별로 달성해 나가야 합니다.
4. **Realistic**(현실적) 현실성이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5. **Timely**(시간설정) 마감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SMART한 목표설정 방법을 참고하여 더욱 전진하는 2018년을 만들어 보세요.

동심의 눈으로 담은 웃음 넘치는 우리 가족 이야기

〈임직원 자녀 동시 공모전〉
참가작

세플러코리아는 지난해 4월 임직원 자녀들에게 상상의 나라를 펼칠 기회를 주고 임직원 가족의 화목을 독려하기 위해 ‘가족’을 주제로 한 ‘임직원 자녀 동시’를 공모했습니다. 총 43명의 임직원 자녀가 참여했고, 그중 가족애 · 창의성 · 완성도에 적합한 6개 작품(최우수상 1작품, 우수상 2작품, 장려상 3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아쉽게 수상은 놓쳤지만 제1회 동시 공모전에 열정과 순수한 동심을 보여준 참가작품을 소개합니다.



최우수상
창원공장
공정기술 창원 PMO
윤태인 매니저 자녀 ‘윤양희’



우수상
서울사무소 증부지사 해외영업
이선종 매니저 자녀 ‘이현준’
창원공장
설비보전 창원 테이퍼베어링MU
임종철 자녀 ‘임수아’



장려상
안산공장
엔진컴퍼넌트 BU 엔지니어링
김성완 책임연구원 자녀 ‘김효원’
서울사무소
Business Development
김문경 선임매니저 자녀 ‘김서율’
창원공장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창원
천명진 부장 자녀 ‘천민서’

최우수상(1명) 안드로이드 패드(20만 원 상당),
우수상(2명)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장려상(3명)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새싹상(37명) 백화점 상품권
2만 원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수상하신 임직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임직원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늘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쉽게 수상을 놓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새싹상을 드립니다.

Global Technology Service
김성만 차장
자녀 김지울

테크놀로지 해석기술
안희훈 선임연구원
자녀 안혜린

25

테크놀로지 R&D 서비스
한진우 선임매니저
자녀 한규혁

테크놀로지 전기설계
배재은 책임연구원
자녀 배서현

테크놀로지 R&D 서비스
한진우 선임매니저
자녀 한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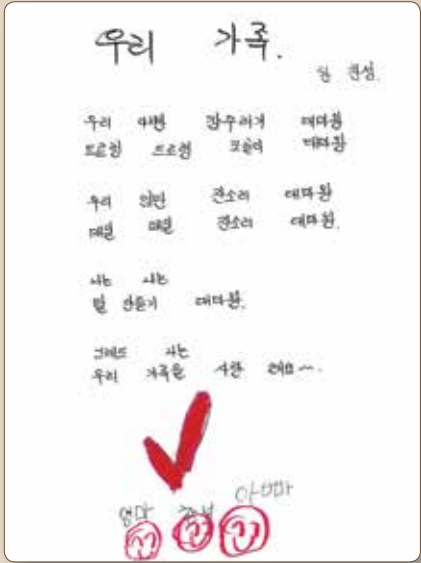
테크놀로지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엔지니어링&PM
강원환 선임매니저
자녀 강태영



아쉽게 수상을 놓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새싹상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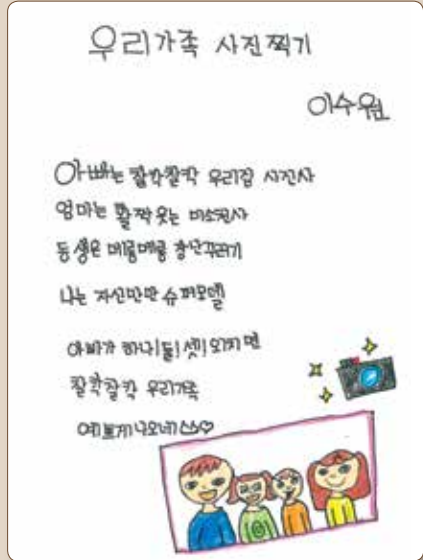


전주공장
볼베어링 세그먼트
한동환 사원
자녀 한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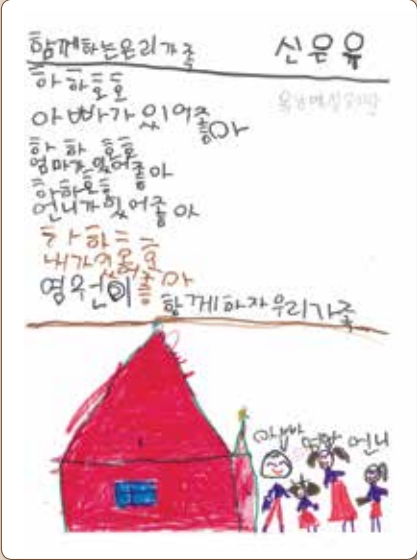


안산공장
벨트&체인 드라이브 시스템 BU 엔지니어링
주민구 선임연구원
자녀 주혜빈

전주공장
볼 세그먼트
서병빈 사원
자녀 서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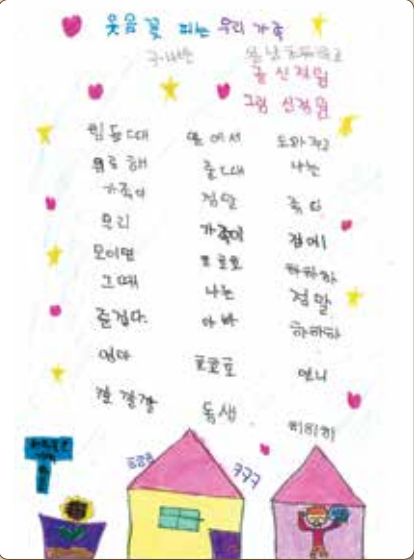
전주물류센터
이재선 사원
자녀 이수원



창원공장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신동기 사원
자녀 신은유



창원공장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김희철 사원
자녀 김가원



창원공장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신동기 사원
자녀 신정원



마치 마법처럼 동화 나라 왕자님이 되는 순간, 인천 송월동 동화마을

안산공장 설비보전팀
양진환 대리

피터팬이 하늘을 나는 법을 잊어 버렸을 때,
그를 다시 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다름 아닌 행복했던 동심을 떠올린 순간이었다.
문득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동심에서
너무 멀리 떠나 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어른도 아이도 모두가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동화나라로 지금 떠나보자.

아빠 엄마와 함께 동화나라로

우리 아이에게 만큼은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만나게 해주고픈 것이 부모님들의 한결 같은 마음일 것이다. 안산공장 설비보전팀의 양진환 대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달리기에 열심인 두 살배기 아들 하준이와 함께 인천 송월동 동화마을을 찾았다. 원래 취지는 아이와 아빠가 함께 떠나는 여행이지만 아이가 너무 어린 관계로 이날은 특별히 아내 손현정 씨도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아직 많이 어려서 동화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그림책을 함께 보여주면 흥미로워해요.” 동화마을에 들어서자 입구에서부터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마을 길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마을입구에는 동화에 나올법한 성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백설공주가 왼쪽에는 피노키오가 웃고 있었다. 심지어 가로등에도 재크와 콩나무의 재크가 가로등을 열심히 오르고 있었다. 하준이도 신이 났는지 유모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빠 품에 쏙 안겨서 이리저리 손짓을 해댄다. 아이의 손짓에 따라 이미 세 가족은 동화나라에 한걸음씩 빠져들고 있었다.



“우리 하준이가
항상 오늘처럼 밝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찾아가게 된 이상한 나라의 하준이

동화 마을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던 그 때 갑자기 매서운 바람과 함께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겨울비 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내린 비에 비를 피하고자 찾아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동화마을 트릭아트스토리’라는 이색 박물관이었다. 길에서 흔히 보는 트릭아트 입체그림이라기 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높고 정교한 입체그림과 체험 영상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따뜻한 실내에 들어와 추위에 끄끄 싸매고 있던 아이의 옷을 벗겨주자 무거운 짐을 내려 놓고 날개를 단 듯 하준이가 이곳저곳을 마구 뛰어 다녔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아이의 걸음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달리는 하준이와 이를 뒤쫓는 진환 씨의 모습에 아내 현정 씨의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평소에 하루 2시간 정도 아이와 자동차놀이, 비행기 태워주기 등을 하면서 놀아주고 있는데, 그래도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날이라도 마음껏 같이 놀아주고 싶어요.” 모든 아빠들의 마음처럼 아이와 놀아주는 이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진환 씨의 얼굴에도 웃음 가득했다.





“아이에게 엄마만큼이나
친근하고 포근한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아내가 질투할 정도로
아이가 저를
더 좋아했으면 합니다.”

양진환 대리

언제나 밝고 맑은 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

이제 결혼 3년차인 진환 씨 부부는 아직도 신혼의 느낌이 가득하다고 한다. 여행동호회 활동 중에 만나 결혼하게 된 이들은 두 살인 아이가 크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도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라고 했다. 아직은 서툰 아빠, 엄마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어떤 힘든 일도 할 수 있다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회사 업무로 지쳐서 돌아올 때라도 집에 들어서는 순간 아이가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을 봤을 때 모든 피로가 한 번에 풀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준이가 저희 부부에게는 비타민 같은 존재죠.” 아이에게 오하려 힘을 얻는다는 진환 씨의 바람은 그저 아이가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라고 한다. “요즘 보면 아이들이 뛰어 놀기가 힘든 환경이 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깝워요. 적어도 우리 하준이 만큼은 공부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곳저곳을 열심히 뛰어다니며 모든 에너지 다 쏟아 부어버린 하준이가 이내 피곤한 기색으로 엄마 품으로 뛰어 들어 잠투정을 부렸다. 엄마의 토닥임 몇 번에 곧바로 잠이 들어버린 하준이를 안고 잔걸음으로 건물 밖으로 나왔다. 바깥의 날씨는 잠깐 햇살이 나왔다가 다시 비가 내리기를 반복했다. 아마도 진환 씨네 가족의 미래도 날씨처럼 맑은 날과 갸은 날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든든한 아빠 진환 씨와 자상한 엄마 현정 씨 그리고 밝고 건강한 하준이가 있기에, 동화나라에 서처럼 이들 가족은 꽃길만 걸어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Tip 인천 송월동 동화마을



인천 중구에 위치한 송월동 동화마을은 어르신들이 남아서 빈집이 늘고 건물도 노후화 돼 활기를 잃었던 곳을, 낡은 담과 울벽에 세계명작동화를 테마로 한 벽화를 입체적으로 그려 동화마을로 새롭게 재탄생한 곳이다. 골목길을 따라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길', '빨간모자 길', '엄지공주 길', 피터팬 속 '요정나라 길' 등 11개의 동화를 만날 수 있다. 곳곳에 동화를 테마로 한 이색박물관, 카페 등이 있어 볼거리가 다양해서 인근의 차이나타운과 함께 관광명소가 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문의 : 인천시 중구청 관광진흥실 032-760-6484

주소 :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길 42(동화마을 트릭아트스토리)

홈페이지 : www.icjg.go.kr/tour

영원한 사랑을 향한 발걸음, 서촌길을 거닐다

안산공장 품질보증팀
오도윤 사원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데이트 코스로 서촌길이 핫하다.
'서촌'은 경복궁 서쪽에 있는
마을을 일컫는 별칭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왕산 동쪽과
경복궁 서쪽 사이, 청운, 효자동과
사직동 일대를 뜻한다.
지난 12월 갓 결혼식을 올린
새내기 부부인 안산공장
품질보증팀 오도윤 사원과
그의 아내 구보연 씨가
결혼 전 마지막 데이트로
서촌을 찾았다.

데이트의 3요소, 눈치, 운치 그리고 길치(?)

커피숍과 영화관을 전전하는 늘 뻘한 데이트에 지쳐 있는 커플이라면 한번쯤 낯선 곳으로 두손 꼭 잡고 떠나 보는 건 어떨까? 안산공장 오도윤 사원과 아내 구보연 씨도 용기를 내어 낯선 장소인 서촌으로 작은 여행을 떠났다. “평소에 둘 다 밖에서 데이트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집에서 영화를 다운 받아 보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운치 있는 길을 걷는 데이트도 색다르고 좋네요.” 오윤 씨와 보연 씨는 오랜만의 야외데이트가 딱이나 설레는 모양이었다. 낯선 곳이니 만큼 두 사람은 잠시라도 떨어질세라 손을 꼭 잡고 걸었고,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골목길은 지나치는 사람끼리 서로 어깨를 부딪칠 만큼 좁은 곳도 있어서 더욱 꼭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옥마을과 삼청동 길로 유명한 북촌처럼 길안내 표지판이 친절하지 않아 안내지도를 보며, 주변사람에게 길을 물어 목적지로 찾아가는 재미도 쏠쏠할 터였다. 만약 잠시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도 그곳에 또 다른 볼거리가 숨어 있

는 그런 곳을 두 사람은 마냥 신기한 듯 둘러보며 걸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늘 함께

원래 천안에 살던 오윤 씨는 4년 전 고등학교 동창의 소개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친구 커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커플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만난 지 한 달 만에 오윤 씨는 세플러 안산공장에 입사하면서 현재까지 장거리 주말커플 생활을 이어오고 있단다. 그래서 인지 둘이 함께 있는 시간 동안은 꼭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 모양이다.

서촌길 골목을 지나 두 사람이 처음으로 찾은 곳은 청와대 입구에 위치한 '청와대 사랑채'였다. 본래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축해서 한국관광관련 전시와 대통령집무실 체험 등의 공간을 마련해 놓은 곳이다. 아쉽게도 대통령 집무실을 체험할 수 있는 2층 전시관은 공사 중이어서 둘러보지 못했지만 청와대가 코앞에 보이는

Will you
Marry me?





+ Tip 서울 서촌

서촌 여행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시작한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로 나와 효자로를 따라 걷는다. 고궁박물관 맞은편 대림미술관 안쪽 골목에 통의동 백송터가 있다. 이정표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골목에서 주민에게 길을 물어야 한다. 종로구청에서 서촌 골목 투어 이정표를 설치하고 있지만 아직 없는 곳이 많아 미리 종로구청 홈페이지에서 상세지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 : tour.jongno.go.kr

세플러코리아 사우님들!

사랑의 세레나데에 참여를 원하시는 사우님들은
엽서 또는 minyje@schaeffler.com 메일로
신청하시길 기다립니다. 사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곳에 와보긴 처음이라며 살짝 들뜬 모습이었다. 조금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두 사람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연신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다. “3년 전 여름휴가 때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더워서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 때 만난 지 얼마 안돼서인지 여자친구는 덥다고 옆에서 투덜대기만 해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그 때는 미안했다고 사과해서 다 풀어졌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운 것 보다 지금처럼 살짝 추운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라며 미소 짓는다. 추위마저도 이들의 애정행각에 한발 주춤 물러날 태세인 듯하다.

결혼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으로

이어 이들의 발걸음은 조금은 특별한 장소로 이어졌다. 한옥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상촌재’와 한국화가 박노수 화백이 실제 거주했던 고택을 미술관으로 개조한 ‘박노수 미술관’을 둘러보며 결혼 전 마지막 데이트를 이어나갔다.

“멀리서 었지만 대통령이 사는 곳도 보고, 전통한옥과 현대식 고택도 살펴보니 조금 색다른 느낌이네요. 저희도 얼마 전 신혼집을 꾸몄거든요. 지금은 첫 시작이라 안되겠지만, 나중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 저희도 꼭 이렇게 멋있게 집을 꾸미고 싶어요.” 두 사람은 결혼 이후 안산에서 거주할 계획이라고 한다. 물론 보연 씨가 원거리로 천안까지 직장을 다녀야 하지만 결혼 후 곧바로 2세를 가질 계획이라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어요. 여자친구와 저를 반반씩 닮은 아이요, 꼭 두 명이상 낳을 계획입니다.” 이미 결혼과 결혼 이후 계획까지도 만반의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함께할 나날들에 설레고 두근거리는 모습이었다.

쌀쌀한 날씨에 몸을 녹이기 위해 따뜻한 차 한잔을 나눌 곳으로 향했다. 발길을 옮긴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은 삼청공원 입구에서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숲내음 가득한 아담한 도서관 겸 카페였다. 그곳에서 도윤 씨는 추운 날씨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는 보연 씨의 볼을 어루만지며 살뜰히 다듬어 준다. 가까이서 봐도 한 발짝 멀찍이 떨어져서 봐도 영락없이 애뜻하고 사랑스러운 커플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연인에서 부부로 차츰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항상 배려심 깊고
저를 꼼짝이 생각해주는 구보연.
내 눈에는 항상 여신같이 예쁘고
천사같이 착하고
누구보다 사랑스런 당신.
나와 결혼해줘서 고맙습니다





요즘에서야 칼로리 걱정 없는 다이어트 식품 또는 입맛 없을 때 먹는 별미 음식으로 대접받지만 도토리묵은 과거 먹을거리가 없던 시절에 끼니 걱정을 하며 먹던 구황음식의 대명사였다. 모든 것이 귀했던 그 시절, 한 사발의 도토리묵은 지금보다 훨씬 귀한 대접을 받던 음식이었다.

고소하고 쌉싸래한 추억의 맛,

겨울별미 도토리묵



전주공장 품질보증팀
정병렬 사원



“ 긴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며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아껴서 한마디만 하자면 ‘서로 배려하고 살자’입니다. 직장생활이라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하면 당장은 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종착점에 다다르면 그것이 결국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

현장에서 맞이하는 화려한 피날레를 위해

무술년 개띠해가 밝았다. 건국 이래 최초의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58년 개띠'가 환갑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었던 세대가 차례로 그 자리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은퇴를 앞두고 있다. 씩씩하고 허전한 마음을 접어두고 축하와 축복의 박수로 배웅하고 싶다.

지난해 마지막 달 즈음에 머지않아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전주공장 품질보증팀 정병렬 사원을 그의 단골집에서 만났다. 1989년 31세의 나이로 입사해 어느덧 전주공장 품질보증팀의 최고참이 되었다는 정병렬 사원은 소위 현장에서 '잔뼈 굵은'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다. “처음 삼미그룹 초창기 멤버로 입사해 회사 이름이 몇 번이고 바뀌었지만, 30여년을 현장에 있다 보니 이제 현장이 제집처럼 편안합니다.” 혈기 넘치던 젊은 시절에 서울에서 다른 일도 해봤지만 역시 지금의 직장에 자리를 잡고서야 이 일이 천직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회사 생활을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해 늘 해왔던 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단다.

힘겹게 살아온 시절에 대한 보상은 가족의 행복

정병렬 사원은 완주에서 태어나 까까머리 시절부터 전주에서 자란 토박이다. 군대 동기의 소개로 만난 아내와 2년여의 연애 끝에 1982년 결혼에 골인하여 36여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함께해 왔다. 단칸방에서 어렵게 처음 시작한 신집살림은 힘들다는 말로는 다하지 못할 만큼이었지만, 2년 터울로 태어난 두 아이 덕에 지금까지 잘 버텼다고 한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는 지금도 쉽게 꺼내지 못할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은 장성해서 제 가정을 만들어가는 아이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지요. 지금까지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같이 해준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온 만큼 지금은 삶의 여유를 누리고 싶다는 그는 정년퇴임 이후 특별하고 거창한 계획 보다는 그동안 일 때문에 자주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도 즐기고, 지인들과 자주 어울려 친목도 다지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단다. 오랜 시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친해진 직장 동료들이 많고, 퇴사나 이직 이후에도 꾸준히 그를 찾아온다는 예전의 직장 동료들도 많아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즐겁고 유쾌하다고. 인생의 커다란 반환점을 향해 여전히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지금의 그의 모습에 서는 인생 베테랑의 여유가 느껴졌다.

은퇴를 연극에 비유하면 공연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1막과 2막의 사이라고 한다. 1막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고 2막에서 다시 화려하게 등장할 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아중 도토리묵촌 서신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58-1번지
063.273.3003



- • 묵은 전분이 주성분이어서 별다른 맛은 없지만 향이나 질감이 독특해 채소 버무림에 부재료로 넣어 무쳐 양념 맛으로 먹는 음식이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순수 토종 먹거리 ‘묵’

묵이라는 음식은 곡식이나 열매의 전분을 추출해서 물을 붓고 끓여 되직하게 풀을 쑤어서 굳힌 것이다. 한자로도, 영어로도 같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서양의 젤리나 일본의 곤약 같은 비슷한 형태의 음식이 존재할지는 몰라도 이는 모두 동물성 지방이 상온에서 굳는 성질은 이용한 것으로 딱히 ‘묵’이라는 정확한 음식 또 그 이름을 공유하는 음식은 우리나라 외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묵은 만드는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다. 가을에 주운 도토리의 껍질을 까서 잘 말린 후 절구로 뺨은 다음 물에 담가 뽕은맛을 우려낸다. 앙금과 물이 분리되면 웃물만 따라내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친 후 가라앉은 앙금을 잘 말려 가루로 만든다. 이 가루를 물에 풀어 풀을 쑤듯이 끓이다가 끈적끈적하게 엉길 때 그릇에 부어 식하면 도토리묵이 된다.

묵의 원료인 전분이 들어 있는 식재료로는 녹두, 메밀, 도토리, 옥수수 등이 있다. 녹두묵은 보드라운 촉감이 좋고, 메밀묵은 구수하며, 도토리묵은 씹쓸하고, 올챙이묵은 국수 가락처럼 매끄럽게 넘어가는 맛이 있다.

묵은 전분이 주성분이어서 별다른 맛은 없지만 향이나 질감이 독특해 채소 버무림에 부재료로 넣어 무쳐 양념 맛으로 먹는 음식이다. 녹두 전분으로 쑨 청포묵은 불에 나오는 미나리와 물쑥, 숙주를 섞어서 초장으로 무치거나 담백하게 소금과 참기름만 넣어 무치기도 하고, 도토리묵은 오이나 쑥갓 등의 생채소를 섞고 고춧가루 등 맛이 진한 양념간장(진간장)으로 무친다. 겨울철 밤참으로 즐겨 먹던 메밀묵은 배추김치를 송송 썰어서 함께 무쳐야 제 맛이 난다. 묵은 무쳐서 바로 먹어야 맛있다. 냉장고에 오래 두면 녹말이 노화되어 단단해지므로 썰어서 끓는 물에 데쳤다가 식힌 후에 무친다.

전쟁 중에 임금님도 드셨던 도토리묵

도토리는 신석기 시대부터 식용해 온 열매다. 이 시대의 유적지에서 공통적으로 야생 도토리가 발견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일찍부터 도토리는 구황식으로 먼저 각광을 받았다. <고려사>에는 충선왕이 흉년이 들자 백성을 생각하여 반찬의 수를 줄이고 도토리를 맛보았다는 기록이 있다. 도토리는 조선시대로 오면서 한층 더 구황식으로 중요시되었다. 숙종은 을해년에 심한 흉년이 들자 몸소 도토리 20말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흉년에는 도토리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한다.

도토리 열매를 맺는 상수리나무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조선시대에 선조가 임진왜란이 터지는 바람에 북쪽으로 피난을 갔는데, 당시 그 지역에서는 상수리나무를 토리나무라고 불렀던 모양이다. 난리 중에 먹을거리가 있을 리 없고, 임금 일행에게 대접은 해야 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황송한 마음에 급한 대로 도토리묵을 만들어 수라상에 올렸다. 나중에 궁궐로 돌아온 뒤에도 선조는 옛날 고생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토리묵을 상에 올리라고 했다. 토리묵이 수라상에 자주 오르는 귀한 음식이 된 것이다. 그 뒤로 수라상에 올린다고 해서 도토리를 상수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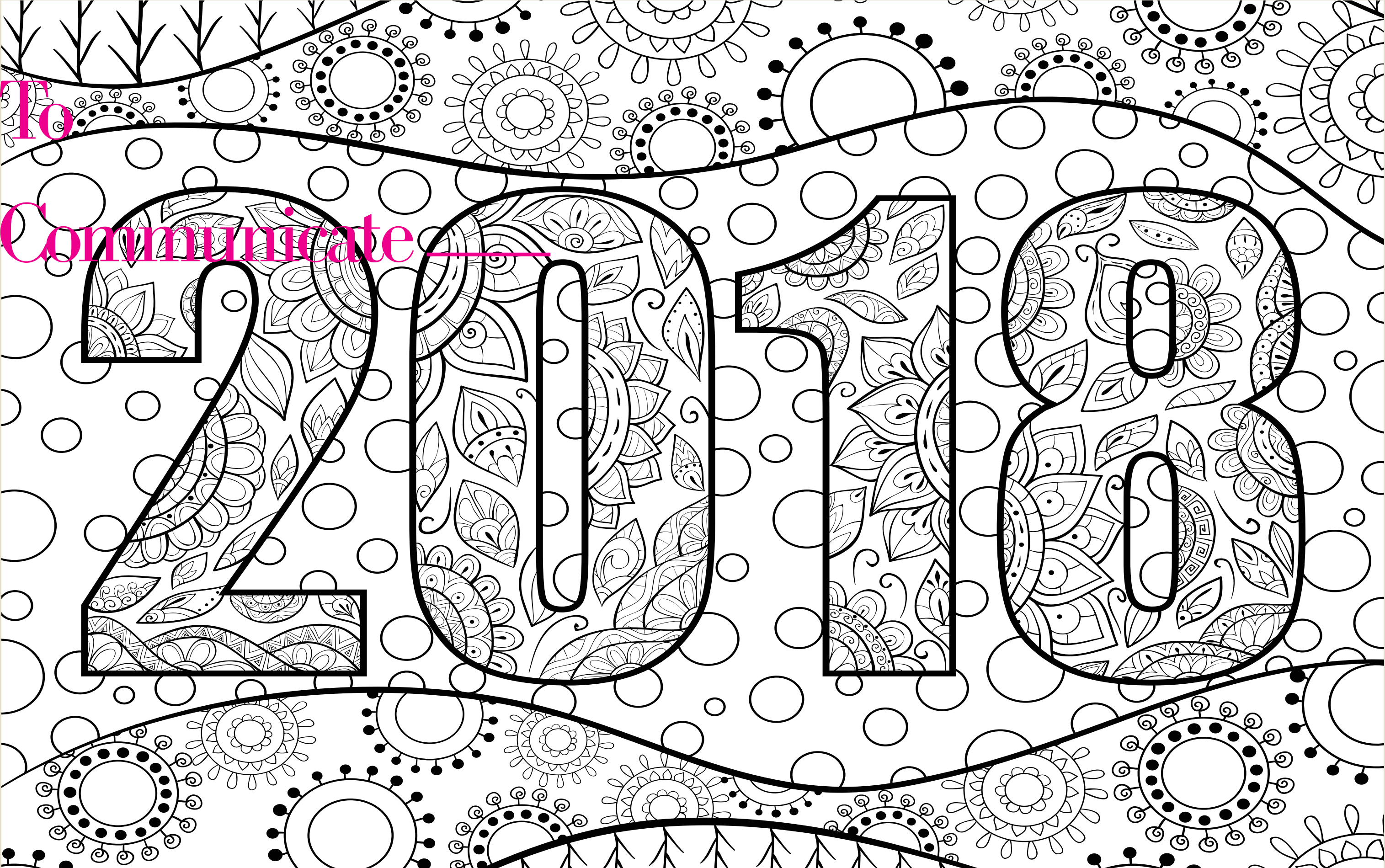
별미와 술안주, 건강식과 다이어트 음식 사이

도토리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등산로 입구다. 어느 산 어느 등산로 입구에서나 ‘도토리묵’이라는 글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는 산 중턱, 산꼭대기의 산장에서도 파전, 김치전 등과 함께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다. 여차피 도토리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앗간에서 도토리 가루를 만들어 여염집의 아궁이 또는 묵 공장을 거쳐 만들어질 테지만, 이들이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까닭은 그곳에서 먹어야 비로소 맛이 완성된다고 믿는 까닭이다. 배고프던 시절에 먹던 도토리묵은 이제 더 이상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에서 벗어나 살을 빼기 위한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으니 세월에 따른 위상이 아이러니하다. 도토리묵은 칼로리가 낮고 쉬게 포만감을 주므로 비만증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적합한 음식이다. 그러나 탄닌 성분이 있으므로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도토리묵은 약간 뽕으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나 식욕을 돋운다고 하니 이 역시 반전이 아닐 수 없다.

요즘은 도토리묵을 만들려면 손이 많이 가서 직접 만드는 이는 별로 없기 때문에 ‘진짜’ 도토리묵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백퍼센트 도토리묵으로 만든 도토리묵은 너무 써서 오히려 맛이 없다고도 한다. 도토리묵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는 도토리의 함량이 나 만드는 방식 보다는 어디서 먹느냐가 더욱 중요한 듯도 하다.



To Communicate





이 세상 끝에서 만나는 거대한 얼음 세상

아르헨티나 페리토 모레노 빙하

대한민국의 정 반대편에 있다는 아르헨티나의 하단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빙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보다 큰 빙하는 극지방인 남극과 그린란드에 있다고 하니 사실상 여행길 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빙하다. 지구의 정 반대편이자 남반구의 끝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세상 끝에서 만나는 풍경이라 일컬어도 무방한 곳, 만년설이 없는 북반구 작은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 어느 각도에서든 더 없이 상징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거대한 얼음 세상, 바로 페리토 모레노 빙하(Perito Moreno Glacier)다.

01

평화를 꿈꾸는 자, 칼라파테로 오라

지구 반대편까지 도달하는 데만도 긴 시간이었는데 거기서 다시 대륙의 테두리를 따라 길고 긴 날들을 내달렸다. 다시 없을 훌륭한 풍경들을 거쳐 왔으나 그만큼 고단함이 쌓였다. 시끄럽게 달려드는 거간꾼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여행의 추억들은 구릿빛으로 변해 갔다. 엘 칼라파테(El Calafate)가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남미 트레킹 문화의 본산인 파타고니아를 대표하는 도시이자 모레노 빙하 트레킹의 거점, 세계 각지의 건각들이 등산 장비를 둘러메고 모여든다는 그곳이다. 그 명성에 걸맞은 절경이 차창 밖으로 흐른다. 끝 간 데 없이 펼쳐진 들판, 그 광활한 대지 위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 떼들, 거대한 웅덩이를 향해 몰려드는 이름 모를 새떼들. 대자연의 변주가 쉴 새 없이 이루어지는 사이, 버스가 드디어 엘 칼라파테에 도착했다. 호연지기를 찾아 나선 이들이 웅성대는 고장답게 도시는 평화로우면서도 기운차다. 어디에서든 눈에 띄는 단단한 통나무집들이며, 너그럽고 호의적인 태도의 현지인들이며, 등산 장비와 지역 특산물을 앞세운 활달한 상점들까지 한눈에 보아도 풍요롭고 넉넉한 기운이 감돈다. 여유가 흘러넘치는 길모퉁이에서 심호흡을 한다. 그간의 노고가 한순간에 씻겨 나가는 듯하다. 사고 다발 대륙이라는 남미에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 있었구나.



02

낙빙, 그 천지를 뒤흔드는 사자후

이른 아침 출발한 투어 버스가 빙하 공원 입구에 도착했다. 아마존, 로라이마, 갈라파고스, 이과수, 우유니, 이스터, 마추픽추 등 남미를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대자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그곳. 남극과 그린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빙하가 여기에 있다. 폭 5km, 길이 30km, 총면적 250km²,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덮을 정도의 면적이라고 하니 실로 거대한 크기다. 공원 입구를 통과해 전망대에 이르니 평균 높이 60~70m에 이른다는 모레노 빙하가 건너편에서 웅대한 자태를 선보인다. 낙빙의 효과가 굉장하다는 방문자들의 수군거림을 알아챘는지 관람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빙하가 자신의 몸통 한쪽을 쪼갬다. 발치에서 보기에는 그리 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수 층짜리 건물에 맞먹는 크기다. 빙하의 균열로 생긴 광음에 이어 낙빙이 수면을 강타하는 소리가 대기를 가른다. 육중하기 이를 데 없다. 소리만으로 존재감을 저만치 입증할 정도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실체가 그 뒤로 존재한다는 뜻이겠다. 낙빙의 순간을 기다려 온 방문자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열렬한 환호성을 만들어 낸다. 환경 문제에 입각해 바라보자면 환호성을 칠 일만도 아닐 텐데 사자후를 토하는 대자연 앞에서 감탄을 자제하기도 쉽지는 않다.

03

영겁의 세월을 지나온 한없이 투명한 파랑

전망대에서 빙하 관람을 마무리한 후, 페리를 타고 빙하가 자리한 건너편 선착장으로 넘어간다.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인 빙하 트레킹이 기다리고 있다. 트레킹 가이드를 앞세워 4~5시간에 걸쳐 빙하 위를 탐험하게 된다. 트레킹의 시작점은 선착장에서부터 30~40분가량을 걸어 올라가야 나온다. 그만큼 빙하는 거대하다. 오르막길을 오르는 동안 제법 커다란 폭포를 지나치지만 뇌리에 그리 깊이 각인되지 않는다. 국내에 있었다면 소문난 명승이 되었겠으나 지구촌의 역대급 빙하 옆에 살림을 틀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폭포의 존재는 쉽게 잊힌다.

안전장구를 착용한 후 드디어 빙하 위에 올라섰다. 트레킹 가이드의 인솔에 맞춰 빙하 곳곳을 누비기 시작한다. 멀리에서 볼 때는 자그마했던 빙하의 주름들은 직접 걸어 보니 생각보다 훨씬 크다. 그 주름들 사이로 이따금 투명한 개울이 지난다. 그 빛깔이 고와도 그렇게 고울 수가 없다.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파랑. 청량하기로는 이 세상에서 따라올 존재가 없겠다 싶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다는 정신들을 합쳐도 이만큼 맑고 푸르지는 못할 것 같다. 마셔도 문제가 없다가에 손으로 떠서 한 모금 마셔 본다. 이가 시리지만 그만큼 머릿속은 맑아진다. 빙하에 농축된 영겁의 기운이 몸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까닭일까.



04

대자연이 일깨워 주는 감정들

거대한 빙하 위에서 각자 준비해 온 도시락을 꺼내 점심을 먹는다. 너 나 할 것 없이 기분 좋게 식사를 하는 사이 바람 한 가닥이 누군가의 도시락 봉투를 집어 저 멀리로 내던진다.환경 보호를 위해 일일 입장객 수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사실을 모든 트레커가 알고 있다. 환경 악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다는 얘기도 트레킹 가이드에게 전해 들었다. 너나 할 것 없이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 상황. 그런데 저 소중한 공간으로 쓰레기가 빨려 들어갔다. 트레킹 가이드가 발 빠르게 돌진해 봉투를 집어 올리고, 트레커들은 가슴을 쓸어내린다. 도시였다면 느끼지 못했을 감정. 대자연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전망대 선착장으로 복귀하는 페리 안. 트레킹 가이드가 트레커들에게 음료 한 잔씩을 건넨다. 빙하 조각을 담은 온 더 락 위스키. 도시에서 마시던 위스키와 맛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빙하'라는 상징이 상상력을 자극한다. 수 시간에 걸친 트레킹으로 노곤하던 차였다. 혈관으로 퍼지는 알코올의 기운이 온몸을 일순간 나른하게 만든다. 곧이어 가슴 한편으로 밀려드는 아쉬움. 큰 기대를 안고 찾아온 거대한 얼음 세계와 어느새 작별하고 있는 까닭일 것이다.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보냈다는 의미일 테다.

2018학년도 아재영역 모의고사 신조어 완전정복(직장편)

2

제2교시

학생들만 쓰는 말인 줄 알았더니, 직장에서 생겨난 신조어도 많다.
자네 지금 뭐라고 한 건가? 어린 부하 직원이 하는 말이 뭔지 모르겠다고 슬퍼하지 마시라.
쉽고 빠르게 직장 신조어들을 살펴보고 소통할 줄 아는 아재가 되어보자.

※ 다음 신조어 중 그 뜻을 알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각 1점)

- | | | |
|---|--|-----------------------------------|
| ☒ 1. 갓수 | ☒ 2. 회의주의자 | ☐ 3. 프로야근러 |
| ☐ 4. 월급 로그아웃 | ☐ 5. 메신저감옥 | ☐ 6. 월급고개 |
| ☐ 7. 영포티 | ☐ 8. 직장살이 | ☐ 9. 넵병 |
| ☐ 10. 사축 | ☐ 11. 워런치족 | ☐ 12. 야근각 |

★ 0~3점 아재임이 확실합니다. 분발하세요! ★★★ 4~8점 혹시 인터넷 좀 해본 아재 아닌가요? ★★★★★ 9~12점 신세대가 확실합니다. 안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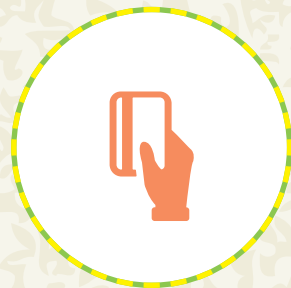
01 갓수

God과 백수의 합성어다.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는 나보다 퇴직하고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는 친구가 더 여유롭고 행복해 보일 때 사용해보자. “와, 부럽다. 역시 갓수!”



02 회의주의자

시도 때도 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 이상으로 회의를 좋아하는 상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소통도 좋지만 바쁠 때 업무 시간 잡아먹는 회의는 제발 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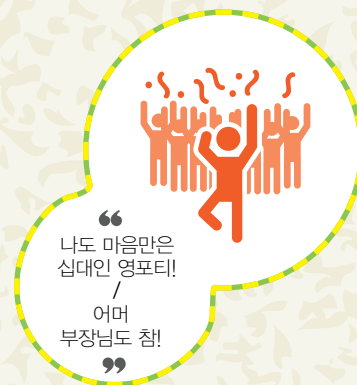
04 월급 로그아웃

기다리던 월급날이지만 월급은 통장을 잠시 스칠 뿐.
월급이 순식간에 카드값, 적금 등으로 사라져버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아, 오늘도 월급이 로그아웃하셨습니다.



05 메신저감옥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연락이 간편해지면서 퇴근 후, 업무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업무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 말.
퇴근했는데도 메신저 때문에 회사와 업무의 감옥에 갇혀버린 기분이 들 때 사용한다.



07 영포티

마흔을 넘긴 아재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삶보다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즐기고자 하는 소비 형태와 라이프스타일을 보인다.



08 직장살이

직장과 시집살이의 합성어.
직장 생활을 시집살이에 비유해서 상사와 선배 등의 등쌀에 시달리는 고충을 일컫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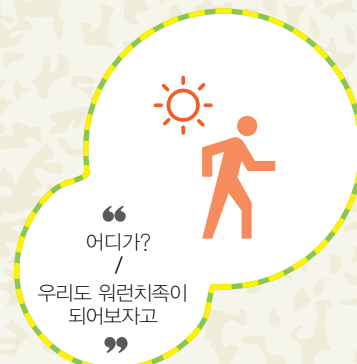
09 넵병

현대 직장인이 대부분 걸려있는 병이다.
상사나 거래처의 말에 “네”라고 하는 건 무뎌진 것 같고, “넵”이라고 하는 건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든다. 대신 씩씩하면서도 정중해 보이는 “넵”으로 업무 채팅방을 온통 도배하게 된 병을 일컫는다.



10 사축

실패 좋은 군말 없이 회사의 가족처럼 일해야 한다는 뜻. 뻔뻔한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직장인의 비애를 자조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11 워런치족

워킹(Walking)과 점심(lunch)의 합성어로, 점심시간에 짬 내 걷기 운동을 즐기는 직장인을 일컫는 말이다. 자투리 시간에 건강도 챙기는 워런치족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12 야근각

~할 각이 나온다, ~할 상황이다라는 의미의 ‘-각’에 야근을 붙여서 만들어진 말.
업무가 많아서 꼼짝없이 야근할 상황을 말한다. 야근할 것 같은데 친구가 퇴근하고 맥주 한잔하자고 할 때, 슬프지만 “안 돼, 나 오늘 야근각이야.”라고 해보자.

세플러코리아의 주인공은 나야 나! 7명의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미래의 세플러코리아 주인공을 자처하는 신입사원들의 뜨거운 열정에
추운 겨울도 금방 달아날 듯하다. 앞으로 미래동력을 향한 세플러의 큰 비전과 동행할
그들의 남다른 각오를 들어보자.



안지훈 사원
서울사무소 회계
'에스프레소'같은 세플러인이 되고 싶어요!
세플러에서 만드는 다양한 커피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원료, 진한 맛과 깊은 여운이
있는 에스프레소같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강명국 사원
서울사무소 회계
'마라톤을'하는 세플러인이 되고 싶어요!
항상 생각하며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배석주 사원
테크놀로지 R&D 서비스 시험평가
'젠들'한 세플러인이 되고 싶어요!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모두 갖춘 인재
'배석주'가 세플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자아자 세플러코리아 화이팅!!



박상현 사원
테크놀로지 전용기 개발팀
'발전'하는 세플러인이 되고 싶어요!
전용기개발팀이 Industry 4.0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고의 개발팀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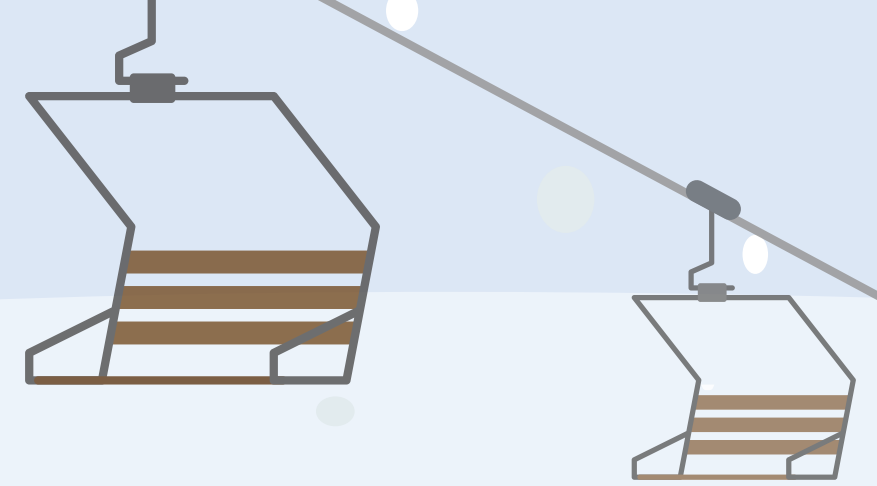
김정수 사원
전주공장 휠베어링 세그먼트
'같이 성장'하는 세플러인이 되고 싶어요!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플러와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김태영 사원
전주공장 품질보증 QA
'행복'한 세플러인이 되고 싶어요!
부서, 회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
세플러의 해피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강문조 사원
창원공장 협력사개발
'무브'한 세플러인이 되고 싶어요!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하게 되어 매일매일
기쁘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다운
마음가짐으로 항상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위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눠요

세플러코리아와 함께하는 농촌봉사활동



일 년 농사의 마무리는 농작물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출하하는 일이라고 한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농작물의 상품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일 년간의 노력이 고스란히
농민분들의 손에
되돌아갈 수 있도록
세플러코리아 직원들이 힘을 모았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다

지난해 11월 15일, 창원공장과 테크놀로지의 직원 10여 명이 농촌봉사활동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주남저수지로 유명한 창원시 의창구 동읍면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농촌 봉사활동에 앞서 인근지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도 가졌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였다. 겨울 이불을 비롯해 쌀과 라면, 휴지 등의 생필품을 전달하며 월동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창원의 특산물 ‘하늘아래 첫 단감’을 만나다

이번 농촌봉사활동은 가을 수확 후 출하를 앞둔 농작물을 시기가 더 늦어지기 전에 출하하는 것을 돕는 일이었다. 단감으로 유명한 창원지역에서는 감 수확이 끝나는 늦가을 무렵부터 일손이 바빠지기 시작하는데 최상의 품질 상태로 출하하기 위해서는 감이 물러지기 전에 선별 및 포장 작업을 서둘러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농촌 봉사활동은 단감의 수매와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북창원농업협동조합’에서 진행됐다. 현재 창원지역의 단감은 ‘하늘아래 첫 단감’이라는 브랜드로 전국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데, ‘북창원농업협동조합’에서 상품 수매 관리, 보관, 포장, 유통 등을 진행하고 있다. 원래는 감 과수원에서 감을 따고, 창고로 이송하는 작업을 도와드리기로 했으나 영농조합의 작업 일정상 맞지 않아 대신 창고



Tip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문의 _ 055-270-6713

ARS기부 _ 060-700-1212

온라인 후원 _ www.together.kakao.com

에 가득 쌓인 상품 유통을 위한 단감 포장 과정을 도와드리기로 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수백 장의 종이상자와의 힘든 겨루기

세플러코리아 창원공장 직원들은 이미 지난 봄에 감 농사를 짓는 곳에서 감꽃따기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가 있다. 선선한 봄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흠뻑 흘렸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보면 감농사의 거의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한다는 남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법 했다.

감의 포장 과정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크기에 따른 선별과정과 개별 비닐 포장 공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이상자에 차곡차곡 옮겨 담고 테이핑을 마무리하는 작업 순서로 진행되는데, 상품의 크기별 선별과 비닐포장 과정은 이미 숙달된 직원 분들이 진행하고 있어 도움을 드릴 수 없고, 대신에 종이상자 포장과정을 돕기로 했다. 특히 잔손질이 많이 가면서도 특별한 숙달 기술이 없이도 가능한 종이상자를 만드는 과정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종이상자를 모양대로 만들고 테이핑하는 작업이라고 알뜰만한 일이 아니었다. 창고 한 칸에 가득한 종이상자 수백 묶음이 눈에 보이는 순간 업무량이 만만치 않음을 직감할 정도였다.

처음에는 일이 손에 익히 않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내 익숙하게 진행되었다. 종이상자를 나르는 조와 상자모양으로 만들고 테이핑하는 조, 완성된 상자를 다시 가져가 가지런히 정렬하는 조로 어느덧 나누어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종이상자에서 나오는 희뿌연 먼지를 가득 뒤집어쓰기도 했지만, 서로 웃으며 화기에 애한 분위기속에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렇게 서너 시간을 바빠 움직인 덕에 처음에 많아만 보이던 작업량을 모두 끝마칠 수 있었다. 어쩌면 손길이 많이 가는 단감농사에서 작은 부분 일테지만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다.



세플러 직원들이 창원지역 내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에 방한용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세플러 직원들이 조를 나누어 단감 포장작업과 종이상자를 만드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 mini interview

테크놀로지 제품기술팀
박광수 연구원



단감 포장 작업과 단감 포장에 사용되는 박스 만들기를 하면서 평소 아무렇지 않게 구매하여 먹던 단감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우리의 손에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세플러코리아의 사회적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플러코리아-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 소아병동서 ‘미리 크리스마스’ 행사 진행



◀ 지난해 7월 22일, 세플러코리아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 5기가 인천 서구의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소아병동을 방문하여 입원한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리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네일아트, 과일빙수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7월 우리회사는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 5기와 함께 따뜻한 행사를 진행했다. 인천 서구의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소아병동에 입원한 소아, 청소년환자들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투병 생활에 지친 소아·청소년 센터 환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22일(토) 행사 당일에는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과 우리회사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

5기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팔찌 만들기, 네일 아트, 과일빙수, 페이스페인팅, 족석사진 포토존 등 총 5개의 부스가 꾸며졌다. 소아병동 환자 및 보호자 100여 명이 행사 부스를 방문하였으며, 에버그린 5기와 함께 평소 병원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공유하였다.

한편, 지난해 4월 발족한 우리회사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 5기는 지난해 12월까지 다

양한 참여기부 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 계층 및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30여 명의 에버그린 5기 단원들은 “답답한 병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유쾌한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면서 “부스를 찾은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보면서 단원들 역시 덩달아 행복해지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펼쳐 - 임직원 가족참여로 더욱 의미 있는 연말돼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서는 지난해 11월 25일, 임직원들은 따뜻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소외이웃 8가구에 각 300장씩 총 2,400장의 연탄과 함께 쌀, 라면 등 식료품을 전달한 것이다. 이번 연탄나눔 봉사활동으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의 8가구가 춥고 긴 겨울을 조금 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사에는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 5기 단원 30여 명과 세플러코리아 임직원 및 자녀 25명 등 약 55명이 참여했다. 2016년 연말에 진행한 연탄나눔 봉사활동은 에버그린 4기 단원들만 함께 한데 반해, 지난해는 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임직원 자녀들이

많아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자녀와 함께 연탄나눔에 참여한 한 직원은 “마침 기회가 되어 아이와 함께 이번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참가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면서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작지만 따뜻한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이가 몸소 깨닫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봉사활동으로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회사는 앞으로도 꾸준히 연탄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25일,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 5기 단원들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서 진행된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한 세플러코리아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과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 5기 단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플러코리아가 중앙일보 기업스토리에 소개되었습니다

세플러코리아가 중앙일보 기업면에 소개되었다. 지난해 12월 30일자 기업면의 기업스토리에서는 세플러코리아의 '사람' 중시 경영가치와 사회공헌 활동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아래는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 전문이다.



세계 50개국서 자동차 정밀 부품 등 생산... 연구개발 투자로 기술경쟁 확대

세플러코리아 경영 최우선 가치로 '사람'내세워 협력업체 초청해 성과 공유하기도 봉사활동, 기부 등 사회공헌 활발

'사람'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세플러코리아(Schaeffler Korea)가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세플러코리아의 노력으로 임직원을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지역사회, 협력사, 이웃까지 따뜻한 손길이 뻗어가고 있다.

세플러코리아는 독일 세플러그룹의 한국 법인으로 전 세계 약 50개국에서 약 170개 사업장을 운영한다. 베어링, 트랜스미션, 엔진 등 자동차 및 산업기계용 정밀 부품과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다.

세플러코리아는 국내에서 경기 안산,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지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안산과 창원에는 연구소를 두고 있다. 세플러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은 약 1조 2000억원을 달성해 세플러그룹 전체 매출(약 17조원)의 7%를 차지할 만큼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병찬 세플러코리아 대표이사는 매일 창원, 안산, 전주, 서울 등 4곳의 사업장을

번갈아 가며 '타운홀미팅'을 열고 있다. 다양한 직급의 임직원이 건의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직접 답변한다. 타운홀미팅은 세플러코리아 임직원의 호평을 얻고 있다.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전문 기술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고,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역 투자 앞장선 공로로
전주시 명예시민증 받아

현재 세플러코리아 전체 임직원 2000여명 중 전주공장에는 약 300명이 근무 중이다. 세플러코리아가 지역 인재 채용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세플러그룹 감사회 의장인 게오르그 F.W. 세플러는 전주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평균 근무 연수가 20년에 달할 정도로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매년 120억 원 이상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만 150억 원 이상 투자를 하면서 지역 경제와 고용 활성화에 기여했다. 세플러코리아는 2005년에도 전주 지역 투자에 힘쓴 이유로 전라북도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바 있다.

협력사 정보 교류의 장 '서플라이어데이'
지난 2006년 시작한 '서플라이어데이

(Supplier Day)'는 지난 한 해 동안 각 협력사가 거둔 의미 있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자리다.

매년 수십여 개의 협력사를 초청해 여는 서플라이어데이 역시 세플러코리아가 협력사를 파트너로 인식해 동반성장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미가 담긴 사례다. 세플러코리아는 이 행사를 통해 비즈니스 현황, 정책, 신규 프로젝트, 향후 계획 등을 협력사와 공유함으로써 협력사가 정보 교류나 네트워크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봉사단 활동이나 기부 통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

세플러코리아는 주변의 이웃을 최우선 가치로 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세플러코리아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EVERGREEN)'을 들 수 있다.

에버그린은 지난 2013년 1기를 시작으로 매년 1기수씩 활동하며 사회 곳곳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 연탄 나눔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조성하면 회사는 해당 금액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 기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렇게 조성된 성금 1억원을 네이버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에 기부한 바 있다.

서 . 울 . 사 . 무 . 소

시차출퇴근제 시행

● 본 제도 시행의 주된 목적은 일반직 사원의 근무 만족도 및 업무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적용 대상은 세플러 코리아 및 세플러 안산에 근무하는 일반직 사원이며,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시범운영기간 (신청기간: 11월 10일 까지)을 가졌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서울사무소 근무 직원, 안산 근무 Automotive 소속 직원에 대하여 본 제도를 시행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각 사업장의 사정을 반영하여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을 시작했다. 본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시차 출퇴근제 운영 지침을 참고하면 되며, 아울러 본 제도와 함께 도입되는 집중근무시간의 임직원 준수가 요구된다.

구분	시작 시간	중식 시간	종업 시간	비고
A형	07:30	해당 사업장 중식 시간	16:30	집중 근무시간
정규근무시간	08:30		17:30	10:30~12:00
B형	10:00		19:00	14:00~5:30

가정의 날 시행

● 노사는 2017년 일반직 단체협상에서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정시 퇴근을 적극 권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취지는 임직원 여러분의 근무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함이다. 회사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가정의 날, 시차출퇴근제 도입했다. 이번 합의가 새로운 기업 문화 만들기 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Office 365 Pro Plus rollout



● MS-Office 2013를 Office 2016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Cloud service 사용을 위한 기반 환경 구축이 금번 업그레이드의 배경이다. 2018년 2월부터 전 사용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롤아웃을 진행할 예정이다.

PC 보안 침해 사고 주의



● 랜섬웨어의 지속적인 출몰에 따른 우리의 보안 인식 환기 필요하다. 사고 사례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랜섬웨어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보호를 위한 최신 보안 / 백신 업데이트도 존재하지 않는다. 침해 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외부 저장 장치 사용을 최소화 하며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첨부 파일 실행을 금지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하는 보안 준수해야 한다.

창원공장

창원공장 장학금 전달



- 창원공장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희망 나눔 장학금 4800만원을 전달했다. 이는 2003년부터 올해 까지 1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창원공장의 대표적인 사회봉사 활동으로, 매년 창원지역 내 초등학교 및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 중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높은 학생들 60여 명을 추천 받아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문직 노동조합 55년차 대의원대회 및 신임 노조위원장 당선

- 세플러코리아 전문직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5일에 대의원대회를 실시했다. 이어진 신임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전광배 후보가 당선 됐다. 전광배 노조위원장은 새로운 노조 집행부를 구성하여 3년간의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주공장

전주공장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 지난해 12월 16일, 전주공장 직원들은 한파 속에서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전주공장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총 200만원의 직원기금으로 연탄 2,800장을 준비하였으며, 15명의 직원이 3개 가구에 각각 300장씩 직접 배달했다. 남은 1,900장의 연탄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을 통해 모집한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 전주 일대 지역에 배달할 예정이다.

제12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 박람회 참가

- 지난해 10월 12일~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 참가하였다. 코트라(KOTRA)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일반 구직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계 기업의 채용 정보를 홍보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로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1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낮지만, 기술력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세플러코리아를 비롯하여 약 120개사를 엄선하여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박람회를 통해 제공했다.

전주공장 2017년 산행



- 단풍과 낙엽이 절정에 이르렀던 지난해 11월 6일, 전주공장 전 직원은 송천동에 위치한 건지산 둘레길 산행을 했다. 본 산행은 총 7.5 km를 약 2시간 반에 걸쳐 등산하는 코스로 총 333명의 직원이 완주했다.

전주공장, 학생 16명에 장학금 전달



- 지난해 12월 27일, 전주공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전북지역본부장 소동하)에 '밝은 세상 만들기' 장학금 800만원을 전달했다. 전주공장 전 임직원은 전북지역 저소득가정 아동을 돕고자 급여의 일부를 모아 이번 장학금을 마련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대상자에 선정된 16명은 전라북도 저소득 가정 아동 중 학업에 재능이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협력업체 직원 자녀도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가 크다. 박찬우 공장장은 이날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 형편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며, 전주공장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공장 전북동부보훈지청과 장학금 전달식



- 지난해 12월 2일, 전주공장은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조춘태)과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을 전달식을 가졌다. 추후 이 장학금은 국가유공자 자녀 1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수여대상자로 선정된 장학생 10명은 국가유공자 자녀 중 어려운 환경에도 모범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들로 선정됐다. 2004년부터 시작해 올해 14년째를 맞은 장학금 전달식은 전주공장 직원 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장학금 5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춘태 지청장은 "국가보훈사업에 꾸준히 관심을 갖는 세플러코리아 전주공장에 감사하며 앞으로 국민들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산공장

노동조합 제23차 정기총회 및 제14대 위원장 선거

- 지난해 12월 29일, 노동조합은 제23차 정기총회 및 제14대 위원장을 선거를 실시했고, 이에 강일환 위원장이 재당선됐다.

